



할렐루야한인교회 EM01 한국에서 영어 VBS를 진행하고 있다.

할렐루야한인교회, 한국에서 영어로 단기선교

줄어드는 주일학교 도우며 불신자 학생 전도

지난 7월 20일 할렐루야한인교회(송재호 목사 시무) EM 학생들이 한국 단기선교를 떠났다. 이번 한국 단기선교는 미국에서 자란 2세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인이라는 민족의식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복음의 증인으로 한국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한인교회에서는 지난 1

년 전부터 기도하며 한국 단기선교를 준비해 왔다. 진찬양 전도사의 인솔로 군산과 서울 교회들을 방문해 영어교실과 영어 VBS(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믿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송재호牧사는 “한국은 선교사 파송 수가 전세계 2위의 선교대국이지만 주일학교 학생들은 점점 줄

어지고 있다. 또 기독교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 교인들마저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선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미국에서 자란 2세들이 멀게만 느꼈던 한국을 방문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영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회 커뮤니케이션 관련 무료 강좌 열린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가 교회 및 선교단체, 비영리 법인의 행정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새로운 IT 기술들을 소개하는 무료 공개 강좌 <교회 커뮤니케이션>을 LA 분교(3020 Wilshire Bl. #170)에서 연다. 대상은 목회자, 신학생, 전문인이며 강의 일정은 8월 2일과 9일 이틀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학점을 받고 싶은 경우 1학점 수업료를 내고 등록이 가능하다.

강의를 맡게 될 제임스 구 교수

는 현재 비영리 선교법인 ICMM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 Ministry,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의 대표이며 그레이스미션대의 행정처장과 교회행정 및 IT, NPO 담당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주요저서로는 Christian Business Strategy in the Marketplace(시장에서의 기독교 경영전략), Management for Non-Profit Organization(비영리단체 운영), Quick Books For Accountant

(회계담당자를 위한 퀵북), Church Administr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교회행정과 정보통신) 등이 있다.

이번 강의 교재인 Social Media & Church Communication- A Practical Guide for Church Leaders(소셜미디어와 교회 커뮤니케이션- 교회 리더를 위한 실무가이드)는 아마존닷컴이나 강좌 당일 10월에 특별 구매할 수 있다. 문의) 714-525-0088



박종호 장로의 '초심' 콘서트가 남가주 일대에서 있었다.

“하나님과 여러분 덕분입니다”

박종호 장로 남가주 지역 '초심' 콘서트

한국 최고의 찬양사역자이자 성악가인 박종호 장로가 간암 수술을 마친 후 재기해 '초심(初心)' 콘서트로 남가주를 방문했다. 그는 2주간 방문 일정 동안 베델한인교회, 은혜한인교회, 또감사선교회, 아름다운교회 등에서 콘서트와 간증을 이어갔다.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던 큰 수술 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활기찬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깊은 감동을 전했다.

그는 “이번 초심 콘서트 일정은 제가 죽을 앞에 있을 때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자 함”이라며 무대에 올랐다. 그는 “간암 판정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막내 딸로부터 간을 이식받아 성공적으로 수술이 이뤄졌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박 장로는 암을 치료하던 때를 회상하기도 했다. “면회도 안 되는 무균실로 들어가기 전, 날이 기도제목 전했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많이 받았다”며 “무균실 안에서 나를 위한 기도가 마치 내 몸을 만지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리고 16시간 동안 막내 딸 박지윤 양이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

일부를 잘라냈다. 박 장로는 “아버지가 돼서, 부모가 돼서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건 알았다.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딸을 향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어 “지난 5월 5일 생일에는 딸이 ‘아빠가 이 세상에 살아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간증했다. 박 양은 간을 이식해 준 후 두 달 만에 회복되고 여섯 달만에 완쾌됐다. 박 장로는 “미안하고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 특히 자비량 예수전도단 선교사들의 성금 덕분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분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려주셨다”고 전했다.

박 장로는 “때론 하나님이 보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언제나 나의 곁에 계셨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했다.

한편, 박 장로는 오는 9월 미주집회를 한 차례 더 준비 중이다. **셀비 권 기자**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ASE CERTIFIED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323.734.4881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안수집사·권사 임직 감사 예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딤후 1:12)

하나님의 은혜로 남가주 벨엘교회는
 아래와 같이 안수집사와 권사 임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큰 격려와 기쁨이 되겠습니다.

- 오병익 담임목사 외 교우일동 -



오병익 담임목사



안수집사

김낙훈, 이일호
 임춘택, 조한진

권사

김선옥, 박명란, 박명숙, 박소연
 원혜경, 조남희, 진혜원

일시 : 8월 13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남가주 벨엘교회 예배당(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문의 : T.(714)886-2562

“북한 내 처형소 무려 333곳” 증언 나와

TJWG, 탈북민 375명 인터뷰 결과 지도로 시각화

북한 전역에서 주민들을 살해한 장소가 최소 333곳, 집단 매장지와 시신 화장터가 47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 의회 기금 지원을 받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TJWG)'에서 탈북민 37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해 '북한 반인도범죄 매핑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를 같이 발표했다.

이는 북한 내 반인도범죄 피해 사망자 집단매장 추정지와 살해 장소, 관련 문서증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조사하는 프로젝트이다.

'매핑 프로젝트'는 집단매장 추정지와 살해 장소, 관련 문서 등 인권 유린 증거가 있을 만한 위치를 파악하고, 고유한 위·경도 좌표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방법은 375명의 탈북민을 인터뷰한 뒤, 지난 2년 동안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구글 어스(Google Earth)를 이용해 인권 범죄 현장 위치를 디지털 지도로 구현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 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지도부와 인권 범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할 것을 촉구한 것에 부응하면서 시작했다. TJWG는 인권유린을 면밀하게 기록하는 '위치 기반 데이터(location-based data)'를 구축, 향후 북한 정권 지도부에 대한 책임규명 조치를 뒷받침하고자 했다.

또 인권침해 유형이나 인물정보를 중심으로 '사건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온 시민사회 인권단체와 정부조직이 여러 곳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 '위치 기반' 조사와 기록활동으로 현존하는 다른 북한 인권 조사기록들을 보완하고자 기획했다.

TJWG 측은 "시각화되는 지도와 관련 증언은 수십 년에 걸쳐 계속된 인권유린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만한 그림을 제공한다"며 "조사 초기단계임에도 몇 가지 경향이 보이기도 했다. 매장지들이 대개 주거지역과 떨어진 산악지역에 분포하지만, 감옥 주변이나 일반묘지 구역에도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또 "살해 장소는 강둑, 시장, 교량 근처, 구류 및 수감시설, 야외경기장에 주로 위치했다"며 "지금은 현장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장수사에 입각한 분석은 어렵지만, 이 조사는 인권 범죄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고 밝혔다.

가장 많이 파악된 유형은 총살이 벌어진 곳으로, 375명의 탈북민이 위성지도를 이용해 북한 전역에 걸쳐 290곳을 지목했다. 다만 여러 사람이 같은 곳을 지목했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 실제 같은 곳이거나 매우 근접하여 같은 곳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곳인지 판별하는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고 한다. 매장지나 시체처리장소로 지목된 곳들은 이러한 위치 묘기 작업을 완료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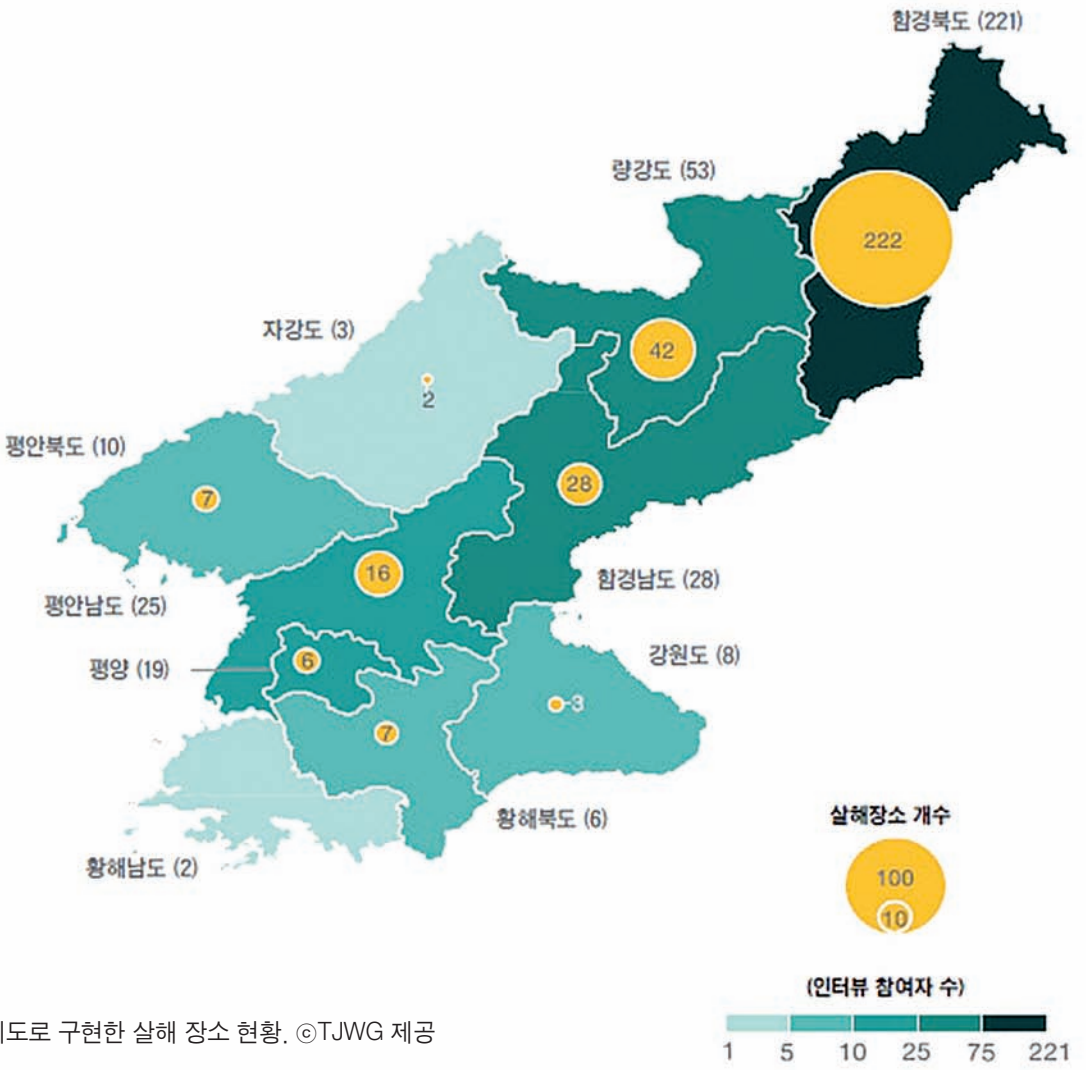
1990년대에는 교수형이 종종 집행되다 국제사회의 비판과 인권개선 압력이 고조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거의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로 입증됐다. 조사에서 교수형 시기와 위치정보가 함께 확보된 총 30건 중 2005년 이후의 교수형은 한 건(2012년)에 불과했다. 한국 일부 진보좌파의 주장과 달리,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노력이 단순 '내정간섭'이 아닌 '실질적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집단매장 추정지와 시체 소각장 등 시신 처리장소로 파악된 47곳은 관리소나 교화소 같은 수감시설 밖 근처나, 민가로부터 떨어진 곳들이었다. 몇몇 증언자는 한 구덩이에 10-15명 정도의 시체가 집단 매장됐으며 위치를 지목하기도 했다. 파악된 매장 추정지로부터 1-4km 반경 이내에 수십 회 이상 살해 장소들이 함께 지목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매장지와 살해장소들 대부분은 함경북도에 위치하는데, 이는 인터뷰한 탈북민 중 58.9%(221명)가 이 지역 출신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 단계에서는 각 도별 인터뷰 참여자 수가 늘수록 추정 매장지와 시체 처리장소, 살해장소들도 대체로 늘어났지만, 살해와 암매장이 몇몇 지방에 편중된 것인지, 지역별 차이가 별로 없는지를 알려면 더 많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요구된다.

탈북민들과의 인터뷰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탈북민 272명 중 79.41%가 피해사망자 유해 발굴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발굴 지지 이유는 "가해자 조사재판에 도움될 증거이기 때문에,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을 돕고 피해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해" 순이었다.

지도 4: 각 도별 추정 살해장소 현황
인터뷰 인원 대비 수집된 정보 (위치 묘기 전 개수)



지도로 구현한 살해 장소 현황. ©TJWG 제공

북한에 '전환기 도래' 시 유해 발굴과 경제기반시설 건설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더니, 약 80%가 유해 발굴을 선택, 탈북민들은 개발보다 인권을 중시함을 알 수 있었다.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 대해서는 94.8%가 강하게 선호했다. 성별이나 피해 경험, 남한 정착 후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었다. 다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선호도가 다소 증가했으며, 70대 이상에서는 책임규명 선호 비율이 10-20대보다 14% 이상 높았다.

가해자들에게 행할 조치에 대해서는, 처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또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회복적 조치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죄를 사면하거나 용서하자는 응답은 낮았다.

피해자들의 배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82%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입장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졌고, 북한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높게 나타

났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TJWG)은 5개국 출신 인권 운동가와 연구자들이 2014년 서울에 설립한 인권옹호그룹으로, 북한을 포함한 세계의 억압적 정권들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응하고자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실현에 초점을 둔 단체로는 한반도에 설립된 첫 비정부단체(NGO)이다. 활동목적은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옹호하며, 분쟁 상황이나 억압적 정권으로부터 전환되는 사회들에 도움될 실질적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TJWG는 지난 7월 25-27일 3일

간 유럽, 북미,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세계 10개국 이상에서 국제형사법, 인권조사, 데이터과학, 정보기술, 법과학 등 관련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과 운동가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증거 수집: 정보기술과 법과학을 활용한 인권조사기록' 국제회의와 실무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인권과 법, 인권조사기록 방법, 증거와 법과학을 이용한 인권범죄수사 등이 중심주제로, 25일 야산정책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국제회의에는 누구나 참석 가능했지만 26-27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실무워크숍은 시민사회단체로만 제한됐다. 이대웅 기자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목회자 아버지학교에 초대합니다

목회자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과 교회가 산다!

제13기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나성서부장로교회(담임 서건오 목사)에서 개설됩니다. 사모님, 성도님...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을 저희 목회자 아버지학교에 보내주세요. 목회자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살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목회자 아버지학교 제13기(6209)차

일시 | 8월 21일(월) 오후 5:00~오후 9:00
 8월 22일(화) 오전 9:00~오후 9:00
 8월 27일(주) 오후 5:00~오후 9:00

장소 | 나성서부장로교회(담임 서건오 목사)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등록 | 1인당 참가비 \$120 (교재 및 저녁식사 제공)

도와주신 분: 권준 목사(미주아버지학교 지도목사)_시애틀형제교회, 김경렬 목사_산타모니카한인교회, 김근수 목사_One Hope Church, 김영찬 목사_효사랑선교회, 김인구 목사_예수사랑교회, 박세현 목사_예수로교회, 성요셉 목사_소망장로교회, 이상훈 목사_사우스베이 주비전교회, 정종섭 목사_새영교회, P테드황 목사_메구미교회

문의 :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 T.(213)382-5454, 김인구목사(준비 위원장) T.(213)700-4689, 성요셉목사(13기 진행) T.(818)331-2481



코너스톤교회의 <영적 성장의 기본진리> 공부 제96기가 시작됐다.

영적 성장의 기본진리 배워요

코너스톤교회에서 제96기 시작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에서는 성도들이 영적 한가죽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영적 성장의 기본진리>를 공부한다. 11주 동안 매주 주일 오후 3시 30분 이종용 목사가 이 공부를 인도한다.

지난 7월 30일에는 제96기 첫 번째 모임이 열렸다. 회회원, 연구원, 유학생, 건축가, 사업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부터 3-4년 출석한 교인도 있었다.

남편과 함께 이 과정을 공부하고 싶어, 4년을 기다린 현정아 자매는 이번 수업에 드디어 남편과 함께 했다. 아내의 기다림으로 이번 공부에 참가한 건축가 권영수 형제는 제96기 반장으로 선출되어 하나님과 이 모임에 자신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늦은 밤까지 함께한 형제, 자매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아이들 때문에 이 공부를 미루었던 박은미 자매는 아이들을 셀 식구들이 돌봐 주는 덕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를 전하고 특히 그동안 묵묵히 기다려 준 이종용 목사에게 감사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심영기 형제는 직원들이 휴가 기간

이라 시간 내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일생일대의 최고의 중요한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구원자로 모셔들이는 것이다. 이 결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영적 성장의 기본진리> 공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들이 성도들이 삶 속에서 이 깨달음을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나의 인생에 보다 위대한 목적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들일 때 내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11주 과정을 모두 마치면 주 안에서 인생의 참 목적이 발견되기를 끝까지 함께 기도하고, 이끌어 주기로 다짐하며 기도했다. 교회 주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교회 전화) 310- 530-8400

셀비 권 기자

제13기 목회자 아버지 학교 개설

두란노 아버지학교가 주최하는 LA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오는 8월 21일(월) 오후 5시부터 9시, 22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27일(주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사랑의빛선교교회에서 열린다. 제13

기를 맞이하는 이번 목회자 아버지 학교는 김인구 목사가 준비위원장, 성요셉 목사가 진행을 맡는다. 참가신청비는 120달러이며 문의는 전화 213-700-4689, 213-382-5454로 하면 된다.

●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기고

이신칭의, 개신교회의 면죄부인가?

루터의 종교개혁은 95개조 반박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성서 안에서 복음을 다시 발견하게 된 그의 구체적인 체험에서 이미 태동되었다. 1512년 어느 날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 탑 꼭대기 골방에서 회심케 되는 ‘탑의 체험’을 하게 된다. 그때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을 새롭게 깨닫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체험을 통해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확신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신칭의(以信稱義)’라 한다. 종교개혁의 주요 슬로건이다. 루터가 말한 ‘이신칭의’는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믿음과 더불어 행위가 필요하다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다. 개신교의 토대가 되는 ‘이신칭의’ 교리는 이후 잘못 해석되거나 불완전하게 이해되어 믿음과 행함이 이원화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실종을 낳는 주범을 ‘오직 믿음’에서 찾기도 한다. 이것은 현대 교회에서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초기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를 율법 폐기 혹은 도덕 폐기로 오해했던 이들이 있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과 함께 ‘이신칭의’를 가르친 바울의 신학 사상은 율법 종교에 매여 있는 이들이 볼 때 불온하기 짝이 없는 이단 사상이었을 것이다.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롬 5:20)라고 말한 것은 그가 전한 복음을 율법 폐기로 오해한 이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야겠네!’라고 바울의 복음을 빈정거리듯 말한 것에 대한 그의 해명(apologia)을 반영한다.

바울이 주장하는 믿음은 행함과는 어떤 관계인가? ‘이신칭의’는 자칫 개신교회의 면죄부로 오인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의 후반부에서 언제나 믿음에 따른 실천적 권고를 명령법 형식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바울은 구원 받은 우리가 앞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그가 강조한 믿음은 살아 있는 믿음이 지 죽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만으로 부족하여 인간의 행함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믿음의 진정성과 성숙성은 일상 속에서 그 열매인 행함으로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질타하면서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을 가르친 사도가 있다. 그는 야고보다. 온전한 믿음이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함을 설교한다. “네가 보거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약 2:22) 이 구절은 바울의 ‘이신칭의’를 자칫 오해하여 행함을 유실하거나 윤리를 실종한 거짓 믿음으로 흐를 수 있는 폐단을 일찌감치 차단한다. 야고보의 신학은 믿음을 기치로 내세운 바울의 신학과 균형을 이루어 온전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다. 야고보가 말한 믿음이란 행함을 포함하는 신실함이다. 그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약 2:23-24)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이삭을 제물로



이상명 목사
미주장신대 총장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즉 행함에 근거한다는 야고보의 주장과 바울이 주장한 믿음을 통한 득의(得義)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바울이 강조한 믿음이 온전한 신뢰라고 한다면, 야고보는 그러한 신뢰가 필히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믿음이란 정적 개념이나 추상적 사유가 아니라 액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행하려고 가까이 무모하다할 수 있는 모험에 오르기도 한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기 위해 고투하는 과정이다. 신앙생활에 방점(傍點)은 있을지언정 중점은 없다. 성서를 기준 삼아 자기 생애를 조율하려 하기 보다는 자기 생각과 욕망을 기준 삼아 성서의 메시지를 재단하고 해석하고 있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이단적 행태다. 우리는 앞의 해석 방식을 엑시지시스(exegesis), 즉 ‘석의(釋義)’라 하고, 뒤의 것을 아이시지시스(eisegesis), ‘자기해석’이라 한다. 성서가 본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으려 하기 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욕망을 성서 본문에 투사하는 아이시지시스 방식으로 성서를 읽으려 할 때, 성서는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럴 경우 그의 생각을 단지 추인해 주는 잡서처럼 대하는 것이다.

바울이 가르친 ‘이신칭의’는 개신교회의 면죄부가 아니다. 참된 믿음은 삶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번역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산상수훈의 결론부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귓가에 쟁쟁하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마 7:24). 참된 지혜자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기대어 행하는 자란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조율하고 번역해 나가라! 이것이 살아 있는 믿음의 행보를 걷는 사람이 취하는 삶의 방식이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일 해결요?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달에 나눠 드리겠습니다.
·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현대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문일명 목사 위임예배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한목자장로교회에 부임하게 됨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지역의 여러 교회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시 : 2017년 8월 6일(주일) 오후 4:00
- 장소 : 선한목자장로교회 본당

위임목사



문일명 John I. Moon
T(818)357-6357
현 선한목자장로교회 담임목사
현 KPC(남가주/하와이 지역) 부회장
센퍼난도밸리 교회/교역자 협의회 회장
파사데나장로교회 임시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부목사

설교



박희민 목사
나성영락교회 원로목사

권면



김인식 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담임
해의한인장로교회 중경 총회장

위임예배 사회



원영호 목사
새장로교회 담임
NCKPC 부총회장
남가주/하와이 KPC 회장

특송 에버그린 합창단 (Evergreen Choir)



특송 God's Image (갯스 이미지)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28>

중국교회의 선교 부흥이 도래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필자는 십여년 전 중국 파송선교사를 보낸 후 몇 차례에 걸쳐 중국선교지를 다녀 왔다. 방문 중 소위 말하는 지하교회(가정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전한 일도 있었다. 어느 편 중국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일도 있고, 서쪽 끝 변방 자치족인 위구르의 카시가르라는 시골 마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직간접적으로 중국교회의 성장을 보아 왔다.

십년 전 쯤에 중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는 예배를 참석하고 그 예배 현장에서 이슬람권으로 파송받아 떠나는 선교사 파송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선교의 촉대를 이 중국교회로 옮기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한 예배였다. 고성능 마이크 시설이나, 수 천 달러의 강대상, 수백 명 성가대의 기계 같은 화음은 하나도 없지만 그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영적 능력이 있었다. 바로 예배자들의 눈빛이다. 진솔한 가슴들이다. 예수 믿은 것을 목숨 바치는 것과 같이 여기는 신앙관이 있다.

선교사 파송은 죽으러 가는 자들을 환송하는 시간이었다. 천국 재회를 외친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갑니다.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찬송이요 인사였다. 난 그 이전 어떤 예배에서도 경험치 못했던 눈물이 쏟아졌었다.

한국교회는 이미 교회성장이 멈추어 가고 있고 미국 역시 진리에서 점점 벗어나는 타락의 징후가 점점 거세지는 때였다. 중국교회는 이미 2000년대가 되면서부터 100만인 선교사 파송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다하고 있다. 중국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교단체들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들과 선교 동역 사역을 통해 점차로 세계 선교의 주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지난 5월 세계선교대회에서 만난 중국 지도자 중에 100만인인 선교사 파송 비전을 동역자들과 함께 지도하고 있는 화북선교회의 심안짜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었다. "우리 중국이 13억 이슬람권을 책임질 것입니다. 중국교회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우리의 영적 진군을 저들이 막으면 넘어갈 것입니다. 죽으면 또 보낼 것이고, 또 죽이면 더 많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중국교회에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라고 선포했다. 큰 감동이었고, 나는 "중국교회는 그 일을 반드시 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나서 한달 남짓 지나지 않아서 파키스탄에서 중국인 선교사 2명이 IS로 자처하는 테러범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보도가 들렸다. 일부에서는 선교를 하다가 죽은 이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해서 죽은 것처럼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는 그 순교의 소식을 듣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이제 파키스탄은 끝장났다"는 것이다. 중국교회를 건드렸다. 아마 중국교회는 그 즉시 파키스탄을 가장 우선 선교해야 할 대상국 1순위로 잡았을 것이다.(어쩌면 이미 잡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 돌격대를 결성했을 것이다. 그들의 신앙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들을 드렸다. 주님을 전하다가 맞이하는 육신의 죽음을 가장 가치있게 여기는 믿음이다. 그 2명의 순교자를 시작으로 중국교회는 이제 수없이 많은 순교의 피를 자랑스럽게 흘릴 것이다.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교회의 항일(抗日)활동 (II)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교육자 정재홍(鄭在洪)은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암살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역시 자결했다.

이런 항일운동은 국내에서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진행됐다. 그 중 대표적 사건은 장인환(張仁換)과 전명운(田明雲)의 스티븐슨(D. W. Stevenson) 격살이다. 1908년 3월 21일, 당시 일제 통감부 외교 고문으로 있으면서 일제의 한국 강점을 여러 모로 도운, 친일파 미국인 스티븐슨을 장인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권총으로 격살했다. 스티븐슨은 휴가차 귀국하여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한국 황실과 정부는 부패하였고, 한국인은 우매하여 독립할 자격이 없다"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재미 한인단체들은 이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스티븐슨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격분한 장인환이 그를 쏘아 살해한 것이다. 이 사건은 세계적 뉴스가 됐고 장인환의 재판도 여론의 초점이 됐다. 결국 장인환은 금고 25년 형을 언도받았고, 후에 감형되어 1924년 석방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의 애국단체들이 통합해 '대한인국민회'를 조직해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됐다.

1909년 12월 23일, 이재명(李在明)의 이완용 습격 사건이 있었다. 명동성당에서 거행된 벨기에 황제 추도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던 이완용을, 군밤 장사로 가장한 이재명이 성당 앞길에서 품고 있던 칼로 그의 어깨와 허리를 세 번 찔렀으나, 호위 순사와 인력거군의 저지로 그만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재명은 평북 선천 출신으로 평양 일신 학교를 졸업하고, 하와이에서 수학하다 1907년 귀국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왕래하며 독립운동을 하던 중국내의 애국노들 처단을 결심했다. 1909년 6월 평양 태극서점에서 안창호(安昌浩), 이동휘(李東輝), 안태국(安泰國) 등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재명이 거사 담당자로 택됐다. 이재명 의사는 1910년 8월 서대문형무소에서 처형될 때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고나' 찬송을 마지막까지 부르며 운명했다.

무군무부(無君無父:임금도 없고 아비도 없다)의 종교로 낙인찍혀 온 갖 수난을 겪은 천주교회는 달리 처음부터 위군위민(爲君爲民)의 종교로 인식된 개신교는 일찍부터 애국심을 길러 왔다. 그런 기독교인의 애국심 발로의 한 표현은 초기 교회 때부터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극기를 거는 행위는 당시에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때 일반 대중들은 태극기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던 때였다. 그러므로 태극기를 거는 자체가 무척 희귀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인들은 선교사들의 지도도 없이 자연스럽게 주위에 태극기를 자기들 집에, 그리고 교회에 게양하는 것으로 애국의 마음을 표현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 꼭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반화된 모습임을, 초기 교회 행사 때 찍어 놓은 사진들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은 한국 교회 애국의 일면을 보여 준다.

국가가 위기에 부딪혔을 때 교회는 기도회를 갖는 것으로 국가를 염려하고 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1905년 일제가 한국을 강압으로 치놀이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제함으로써 민족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 이런 어려운 때, 교회는 기도로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께 청했다. 그 해, 9월 장로회 공의회에서 김선주 장로는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갖자는 발의를 했다. 공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전국 교회에 일주일을 국가를 위한 기도주간으로 선포하고 이를 실천했다. 같은 해 11월 을사늑약이 선포되자, 상동 감리교회에서 전덕기(全德基), 정순만(鄭淳萬)의 인도로 매일 수백, 수천의 교인들이 모여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1907년 7월, 정미조약(丁未條約)이 공포되어, 조선의 군대와 경찰이 해산되고,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조선을 위한 기도를 세계 교회에 호소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항일을 단순한 기도회 개최 정도로 끝내지 않고, 집단적 시위 형식, 또는 폭력적 방법으로 표출한 이들도 있었다. 이들의 무장투쟁이 기독교 정신

에 입각해 볼 때, 잘못된 것이라는 논쟁 가능성은 여기서 배제하고, 이들의 행적을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을사늑약이 공포되자, 격분한 기독교인들은 이에 대한 항쟁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다. 엽월청년회(갈리교 청년회)가 서울에서 모였는데, 이 모임의 명분은 교회 사업을 의논하는 것이었으나 실은 애국운동이 목적이었다. 이 때 전덕기(全德基), 정순만(鄭淳萬), 이준(李儔), 이동녕(李東寧), 옥관빈(玉觀彬), 김구(金九) 등이 각지 대표로 모였다. 이 회의에서 '도끼를 메고 상소'하기로 하고, 1회, 2회로 4~5명이 연명으로 상소하여 죽든지 잡혀 간하든지 몇 번이고 반복하자는 결의를 했다.

이준이 지은 제1회 상소문을 올리러 떠나기 전, 일행은 정순만의 인도로 상동교회에 모여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죽기까지 일심으로 수행하자는 맹약의 기도를 드리고 일제히 대한문(大漢門)으로 물러갔다. 그러나 이들이 대한문에 당도했을 때, 일제 경찰이 나타나 강제 해산을 해 버렸다. 이 날에 민영환(閔泳煥)이 의로운 자결을 했고, 참찬(參贊) 이상설(李相高)이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다.

한편, 우선 을사 5적(五賊) 처단을 목적으로 전덕기 등이 평안도 장사들을 모집해 암살을 계획한 일이 있었다. 이즈음, 평양 교인 몇이 상경해 을사늑약 철폐와 5적 처단을 요구하는 격문을 살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일부 다른 교인은 "2천만 동포에게 보내는 글"을 살포하다 일본 경찰과 충돌하는 일도 있었다. 경기도 양주 지방 홍태순(洪太順)은 고종이 일제에 의해 강제 퇴위된 것에 격분하여 대한문 앞에서 자결했고,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종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이사장 : 오병익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렌다,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라미라다 가든 꽃집

La Mirada Garden Florist

Flowers For All Occasions

Serving OC and LA Counties since 1969

라미라다 가든 꽃집은 35년 넘는 경험, 노하우,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감각의 꽃으로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꽃집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개업식 그리고 모든 이벤트를 아름다운 꽃과 서양관, 각종 화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배달 해 드립니다.

www.lamiradagarden.com
 lamiradafiorist@gmail.com

Tel. 714 521-0901, 800) 645-1114
 14794 Beach Blvd., City of La Mirada, CA 90638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리스장 의사 일까요?

-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 의사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장례는 현실입니다
-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채플을 보유한 오렌지카운티 유일의 한인장 의사

리스장 의사

Lee's Mortuary FD1164

Since 1966

채플을 보유한 오렌지카운티 유일의 한인장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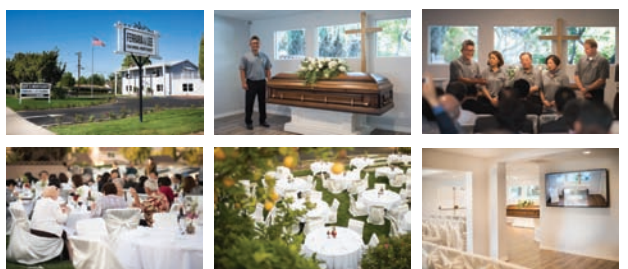
리스장 의사

더 가까이에서, 더 편안하게 모십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1966년부터 고객들을 모셔온 리스장 의사 1000대 동시 주차가 가능한 넓은 파킹장과 리뉴얼 된 쾌적한 채플 비디오 모니터를 비롯한 최신 시스템, 편리한 케더링서비스와 아름다운 가든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곳은 리스장 의사 뿐입니다. 오렌지카운티에 계신다면, 리스장 의사와 상담하세요.

고인의 교회, 자택 등, 평소에 고인이 편안하게 생각하신 곳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리스장 의사에서 가족처럼 함께 일하실 장례서비스 / 장례보험 카운셀러를 모십니다
 문의 (310)984-0888 / rchoi@leesmortuary.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토로되어 인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하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사우스 베이, 토렌스, 가디나 지역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이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여성 목사 안수 '뜨거운 이슈'

'성경적 근거' 놓고 송영목·최갑종 교수 다른 의견

여성 목사 안수 문제가 또 다시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예상 고신 총회(총회장 배광호 목사)도 가입된 ICRC(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Churches, 국제개혁주의 교회협의회)에서 여성목사 안수를 허락한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파(Reformed Churches in the Netherlands)에 대해 회원권을 정지하면서 재개된 이 논쟁은, 국내 여러 교수들이 입장을 표명하면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먼저 송영목 교수(고신대 신약학)는 '여성 안수가 확실한 성경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제의 글을 한 매체에 기고했다. 송 교수는 "성경에 여성이 안수를 받았다는 언급이 없고, 여성 목사가 언급되지 않기에 여성 안수에 대한 논의 자체가 소모적 이데올로기 논쟁이라는 극단적 주장도 있는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없다 해서 삼위일체 논의를 무의미하다고 볼 이유는 없듯이, 여성 안수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남성들만 제자로 택하신 누가복음 8장 1-3절, 바울의 '여성동역자'를 소개하는 사도행전 18장과 로마서 16장 1절, 바울의 여성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 고린도전서 11장 2-16절 등 여덟 구절을 근거로 성경이 여성안수에 허용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참고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no=11673).

그는 "여성 안수를 결정지를 요소는 전통이나 교회의 필요가 아니라 성경해석"이라며 "위에서 논의한 신약 구절들은 시간 제약적인가(time-bound), 아니면 시간 오리엔트적(time-oriented) 혹은 시간 초월적인가?(time-transcended) 즉 본문의 가르침은 AD 1세기에 한정된 규범이기에 현대 교회에서는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는가? 아니면 영구적 진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시간 제약적', 즉 여성안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1세기의 특수한 문화적 상황 안에도 규범이 있다. 즉 1세기에 국한되는 특수한 문화적 상황이 있다"며 "하지만 그런 상황 안에도 타락 이전에 규정된 창조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에 따라 남성에게 제한된 구약의 제사장직과 신약의 사도직과 장로직에 근거한 영구적 규범을 동시에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 "신약 본문을 1세기에 국한되는 내용으로 보는 해석을 쉽게 허용한다면, 신약 본문의 규범성이 약화되고 나아가 현대에 적용할 때 큰 혼동을 일으킬 것"이라며 "또한 여성 안수를 허용할 경우 제기될 실제적 문제들(사모의 역할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목 교수는 "교회학교에 여교사들이 봉사 중이지만, 주일학교는 설교와 성례가 시행되는 교회가 아니다. 물론 남자건 여자건 복음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골 3:16)"며 "따라서 교회학교의 여교사를 여성 안수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교회(교단)는 이 문제로 조만간 큰 흥역을 치를 수 있다. 여성 안수에 관한 역사적·주석적·실천적 연구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영역별로 나누어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발표회를 통한 공청회를 통해 준비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여성 안수에 대한 논의를 만지지도 말아야 하는 선악과처럼 기피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최갑종 교수(백석대 총장, 바울신학)는 '여성안수를 반대할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글을 같은 매체에 기고했다. 최 교수는 "기독교는 초기 시절부터 당대 가부장적 사회와 문화를 뛰어 넘어 여성을 남성과 똑같은 인격으로 간주했고, 여성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했다. 구원의 은총과 은사와 교회의 제반 사역에 있어 여성을 차별하지 않았다"며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이 교회의 구성원이 됐고, 남성들과 함께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으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쳤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 1백여년 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근세기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은, 당시 유교의 남존여비 사상과 가부장적 사회 구조 안에서도 선교사들과 함께 여성을 교회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여성을 교육시키고 개

화시키는데 앞장섰다"며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여성의 문제에 있어 오히려 사회보다 뒤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여성의 성직 안수(예를 들면, 여성목사와 장로직분)를 비롯한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갑종 교수는 "여성의 성직 안수 문제는 이미 지난 반세기 이후부터 한국 기독교 안에서 가장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된 문제 중의 하나로, 어떤 교단 교회들은 이 기간 동안 교단의 금기사항으로 간주돼 왔던 여성안수 문제를 허용하여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위치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반면, 어떤 교단 교회들은 여성안수 문제를 교단 신학 및 정체성과 결부시켜 계속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왜 한국 개신교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 문제를 두고 이와 같은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더 심각한 문제는, 여성안수 문제를 포함하여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더욱 확대하려는 교회나 신학교 교수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성의 안수 문제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 하는 교회나 신학교 교수들까지도, 똑같이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를 초대 기독교 공동체와 신약성경의 가르침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라며 "여성안수를 반대하던 찬성하던, 다 같이 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주장의 신학적 근거를 주로 바울서신에서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여성안수를 반대하는 교수들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남자는 여자의 머리'를 가리키는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가르침, 디모데전서 2장 12절의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가르침 등에 근거하고 있다. 반면 여성 안수 지지 교수들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가르침, 고린도전서 11장 1-12절의 '주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다'는 가르침, 바울이 자신의 선교와 목회현장에 브리스길라, 비비, 순두게 등 여러 여성 사역자들을 참여시킨 점 등에 근거한다.

이에 최 교수는 이후 사도 바울의 교회 안에서 여성 위치와 역할에 관한 주요 가르침을 헬라·로마·유대사회의 문맥과 관련해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성직안수 문제에 대해 상세히 살폈다(참고: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no=11682). 그러면서 "바울서신 안에 여성과 그의 사역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양면의 교훈이 있지만, 그럼에도 바울의 서신들은 여성안수 문제에 대해 가타부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바울 자신과 그의 교회에 있어 여성안수는 전혀 이슈가 아니었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여성 안수를 지지하던 반대하던, 바울서신으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본문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만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주장을 비성경적으로 매도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그러나 이 글이 여성안수 문제에 중립적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다"며 "여성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그 주장의 성경적 근거로 제시했던 내용들이 편협되거나 부적절한 성경해석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바울서신들은 바울의 교회 안에 여성의 사역자와 지도자를 세움을 받아 활동한 자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여성안수의 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창세기 1, 2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적어도 타락 이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남자와 여자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똑같은 사명과 책임을 주셨다(창 1:26-28; 2:18-25)"며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갈등 관계가 시작되고, 가부장적 사회와 문화구조가 형성된 것은 어디까지나 창세기 3장 이후의 타락에 기인한다. 그럼으로 남자와 여자의 갈등과 여성의 성차별 등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와 함께 극복되어야 할 문제"라는 말로 여성안수를 반대할 성경적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대용 기자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한 루터교회 ©위키미디어

핀란드 내 무슬림 이민자 기독교 개종 건진 과정 등록... 기독교 신앙 배우는 중

핀란드의 무슬림 이민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는 7월 30일(현지시간) “복음주의 루터교 지역 교구들이 무슬림 이민자들을 위한 건진 과정(confirm class)을 만들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무슬림 개종자들의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전망해도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개종자들은 주로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출신이며, 현재 20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핀란드 동부에 위치한 이마트라의 타이니온코스티 교구에서 건진 이전 과정을 등록해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있다. 이들은 다리어나 페르시아어로 된 신약 성경을 읽고 있다. 다리어 통역자는 스카이프를 통해 영어로 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알리라자 후세이니라는 이름의 한 개

종자는 “아직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세례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좋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종자인 골라미르 호세이니는 “오랜 기간 동안 아프간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안 하고 있다. 내가 개종한 사실을 알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람에서의 개종은 공동체 내의 분열을 가져오며, 전통적인 무슬림 가정에서 수용될 수 없는 일이다. 일부 개종자들은 국가나 가정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기도 한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라에서 건진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이슬람 신앙에 환멸을 느낀다. 절대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강해진 기자

월마트 계산원의 작은 친절 ‘감동’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

월마트 계산원이자 20살 대학생의 친절한 행동에 3명의 아이를 기르는 양부모가 눈물을 흘렸다.

최근 미국 CBS를 통해 보도된 이 대학생의 이름은 니콜라스 테이트(Nicholas Tate). 오클라호마 출신인 그는 월마트에서 2년간 일해왔다. 그 날도 여김 없이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간 계산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자신의 계산대에서 줄을 기다리고 있던 한 여성이 3명의 아이들을 이끌고 저소득층 가정을 돕는 연방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WIC)을 사용해야 한다고 그에게 말했다.

이날 처음 이 복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여성이 계산대에서 자신이 선택한 식료품들을 계산하러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녀로 인해 계산이 지연됐고 계산대 줄은 길어졌다. 결국 분리된 다른 계산대를 운영해야 할 상황에 놓였으며 다른 고객들은 항의했다.

계산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이 여성은 당황했고 테이트는 “하나님께서 이 여성의 식료품값을 대신 지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면서 결국 60달러 상당의 식료품 값을 직접 지불했다.

이미경 기자

이혼 재판 맡은 기독교인 판사 사퇴 요구 레즈비언 여성 요구에 법원은 거절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7월 30일 앨라배마 주에 거주하는 한 레즈비언 여성이 자신의 이혼 및 자녀 양육권에 관한 재판에서 기독교인 판사를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AL.com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티아라 브루크 라이컨스(Tiara Brooke Lycans)는 소나단 C. 벨 판사가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자이고 종교적으로는 침례교인”이라며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녀는 벨 판사의 종교적인 관점이 아이의 양육권과 관련한 이혼 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소송에서 사퇴해 줄 것을 2번이나 요청했다.

그러나 벨 판사는 그녀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이에 라이컨스는 앨라배마 주 민사법원

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벨 판사가 15년 동안 설교자로 지내왔고, 판사가 된 이후에도 그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벨 판사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하나님의 법과 반대된다는 신념을 공적으로 밝혀왔고,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내 아이의 양육권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벨 판사는 첫 판결에서 라이컨스 부부의 공동 양육권을 인정했다. 그는 앞서 다른 2건의 이혼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도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라이컨스의 요청을 거부해 벨 판사는 계속 그녀의 이혼 재판을 맡게 됐다.

RT.com에 따르면, 벨 판사는 지난 2013년 순회법원에 판사로 임명됐으며, 리버티 침례교회 목회자로 봉사해 왔다.

강해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재가 되어 3300 세계를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Valley Chapel LA버버치스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5:00, 토 8:00, 사백예배 월-금 오전 5:30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바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포기기도회 9:00pm, 금요온전야이예배 8:00pm, (더글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대학생예배 오후 2:0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Nasung Church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 691-0691 / F. (562) 691-0698
www.nachimban.org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주일 3부예배(영아) 1:30 PM, 금요찬양예배 7:30 PM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주일 오후 5:3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렐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88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김요셉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주일 오후 5:30
허규담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562) 802-4959 / F. (714) 308-7308 / us8291@gmail.com

주일예배(가) 주일 11:00a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00, 토요한글교회, 예뎌터스콜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 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n Presbyterian Church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리스캐닉 예배 오후 5:00
주혁모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 217-5558

주일 성령이 예배: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김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937 W. Chapman Ave. #105, Orange, CA 928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2017

다니엘기도회 & 꿈이있는미래 컨퍼런스 해외투어

in Los Angeles & Orange County



김은호 목사
오른교회 담임



주경훈 목사
꿈이있는미래 소장



주성하 목사
다니엘기도회 팀장

진정한 교회 연합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목회전략 컨퍼런스에 초대합니다.

대상 목회자

등록비 무료

일시 2017.8.28.(월)

강의자료, 간증집, 찬양CD, 식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등록방법 및 문의

→ 인터넷등록
www.danielprayer.org

→ 전화등록(컨퍼런스 본부)
82-2-6413-4922~4924

➤ '다니엘기도회'란? (www.danielprayer.org)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꿈꾸는 연합기도회로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각 교회의 현장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참여하는 기도회입니다.
(현재 7,000여 개 교회 참여)

➤ '꿈이있는미래'란? (www.coommi.org)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도록 돕는
크리스천교육기관입니다.
(현재 1,600여 개 교회 참여)

당일 일정

	로스앤젤레스(LA)	오렌지카운티(OC)
1부 등록 및 찬양	10:00~10:20	16:00~16:20
2부 목회 나눔의 시간 - 건강한 교회! 행복한 목회!	10:20~12:00	16:20~18:00
3부 식사 및 사역박람회	12:00~13:00	18:00~19:00
4부 다니엘기도회 / 꿈이있는미래 사역 소개	13:00~14:30	19:00~20:30
5부 한국교회와 LA한인교회를 위한 기도회	14:30~15:00	20:30~21:00

로스앤젤레스(LA)

시간 10:00~15:00
장소 Garden Suite Hotel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연락처 213-383-0000

오렌지카운티(OC)

시간 16:00~21:00
장소 나침반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연락처 562-691-0691



Members of multiple Southern California churches visited the Kurdistan Region of Iraq in June, where they provided medical and dental aid for Yazidi refugees, and also hosted an English camp for Yazidi refugee children. (Photo courtesy of Habibi International)

Church Offers Seminar on Issues Related to Immigration

BY RACHAEL LEE

A Los Angeles church hosted a seminar on issues related to immigration on Sunday, featuring an immigration attorney who shared advice on how to respond in encounters with immigration officials, and explained steps to take to obtain permanent resident status or naturalization.

The seminar was hosted by Hillside LA, the English-speaking congregation of Los Angeles Christian Presbyterian Church, and featured Jane Oak, the principal attorney at the Law Offices of Jane Oak and Associates, PC.

Oak, who has given seminars on the topic in various contexts including at schools, offered practical tips on various aspects of the immigration issue, such as the specific types of visas and what they require in order to be able to obtain green cards, and the different types of statuses that non-citizens can have in the U.S.

She also shared specific advice on how – or how not to – respond in the event that individuals encounter immigration officials.

For instance, Oak advised them to maintain a respectful posture, and refrain from getting into an argument, complaining, or threatening to file a complaint.

“Anything you say or do can be used against you,” said Oak.

At the same time, individuals also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d she distributed resources such as ‘rights cards’ for them to

be able to use. The card explains that the cardholder would like to remain silent and contact his or her attorney.

She also advised individuals to prepare for the worst case scenarios by consulting with attorneys, preparing a notarized letter to give legal power to a trusted individual to care for children, and to keep copies of important documents in safe and accessible locations.

Though immigration raids and deportations have been more widely publicized in recent months, the actual raids or deportations themselves are not unusual, according to Oak, as they have occurred even before the Trump administration. However, she said she observed that the rhetoric as well as the public attention on the immigration issues have caused an increase in fear in the immigrant community.

“Among my own clients, I’ve seen an increase in mental health issues,” she said.

Having seminars such as this one would serve to help and empower those in the immigrant community who are also members of the churches of Los Angeles, said Sam Koh, the lead pastor of Hillside LA. In fact, the idea for hosting the seminar was initiated by the members of his congregation, and Koh also felt the need for the church to offer a practical resource.

“This is one of the ways that the church can be relevant to the needs of the community,” said Koh.

Habibi International: ‘Serving Refugees in the Middle East’

BY RACHAEL LEE

What began with an email requesting medical and dental help has grown into a regular effort by a group of friends from multiple churches to serve the Yazidi refugee population in northern Iraq.

That first email, received by Willy Tan, a lay member of a community church in Fullerton, led to a trip to Southeastern Turkey in 2015, and then a trip to the Kurdistan Region of Iraq in 2016, which consisted of providing medical and dental services to Yazidi refugees.

Those initial trips then led to six more trips to Kurdistan, trips which have been called ‘Project Nineveh.’ The most recent Project Nineveh trip took place in June, during which a team of 15 hosted English camps for a total of some 400 children and youth from three different Yazidi refugee settlements.

Yazidis, a population identified by their religion Yazidism, have been severely persecuted by the Islamic State since 2014. Calling the Yazidis ‘devil worshippers’ for their faith, ISIS militants have captured thousands of women and girls as slaves, and forced tens of thousands to flee their homes in Sinjar.

Since 2015, members from multiple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have participated in the trips to Kurdistan, ranging in age from 15 to 65 years old, and coming from diverse occupational backgrounds, including professionals in the medical, dental, finance, IT, business, and educational fields.

Now, Tan and several others who have gone on the Project Nineveh trips plan to make this a regular part of their lives: they are in the process of forming a non-

profit organization called ‘Habibi International.’ *Habibi* is an Arabic term of endearment also used by Yazidi individuals.

“Habibi International seeks to impact the lives of refugees in the Middle East by providing humanitarian relief and development in partnership with local organizations and NGOs,” said Daniel Chung, a member of a Los Angeles church who participated in two Project Nineveh trips. “Our primary means of achieving this is through a humanitarian imperative that encompasses healthcare, children’s, women’s and young adult services throughout the year.”

One of the reasons members of Habibi International felt the need to start a completely new organization was to provide more opportunities to serve the Yazidi refugees. Only the United Nations and larger NGOs currently have a presence in Kurdistan, such as World Vision or Samaritan’s Purse – agencies which not many in the community are able to gain access to.

But more importantly, Tan hopes Habibi would be able to serve those in the Yazidi population in Kurdistan who may not be reached by aid workers from those larger agencies.

“We want to focus on serving the refugees in the settlements, not the UN-sponsored camps,” Tan explained. He estimated that only about 60 percent of the Yazidi refugees in northern Iraq live in the UN-sponsored camps, and the remaining population live in settlements.

Refugees living in the settlements – areas where the Yazidi refugees have congregated on their own, located in places such as abandoned, unfinished apart-

ment buildings – have limited or no access to resources such as water, food, electricity, medical and dental care, and education, Tan said. Living conditions are often bleak.

“Seeing where they live, it made me think, ‘How can anyone live here?’” Chung recalled during an information session hosted on Friday in Walnut, CA.

The settlements also have large populations of children, particularly because Yazidi families tend to be large – at least 10 children per family, according to Tan. But there aren’t enough schools to meet the educational needs of all of the children, and for many families, education is not a priority, he said.

“The English camp was a source of some stability for the children in which they can just learn,” said Chung. “And education is a means to be able to change whatever circumstance you’re in.”

Though in the meantime, Habibi plans to continue hosting more short-term English camps for Yazidi children residing in the settlements, the hope is to provide a longer-term and broader spectrum of education as Habibi becomes an official organization.

And with the establishment of Habibi, Tan and the other members hope that more sustainable and continuous forms of aid – including food, water, and medical and dental care – would be able to reach the Yazidi refugees as well.

Habibi will be taking three trips to northern Iraq in October and November, during which it will be hosting English camps as well as providing more medical and dental care.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Project Nineveh at info@habibi-international.org.

Korean American Students Travel to the ‘Motherland,’ Carrying the Gospel

A team of short-term missionary students in the English ministry of First Southern Baptist Church of Walnut left to South Korea on July 20 to share the gospel. The aims behind this mission trip were many, including restoring a sense of identity as a Korean in the Korean American students, and more importantly, providing them an opportunity to be messengers of the gospel.

First Southern Baptist Church (SBC) of Walnut has been prayerfully preparing for this trip for one year.

Under the leadership of Matthew Jin, the EM and youth pastor at First SBC of Walnut, the team will be visiting churches in Gunsan and Seoul, teaching English and carrying out Vacation Bible School (VBS) programs in

English, and sharing the gospel to non-believing students in South Korea.

“Though Korea is known to be the second most missionary-sending country, the number of students in Sunday schools has been gradually decreasing,” said Jae Ho Song, senior pastor of First SBC of Walnut. “The reputation of Christians has also been damaged, so that even those within the church are leaving. Missions in Korea is necessary.”

“I hope the Korean American members in this mission team will rediscover a part of their identity in a land that may have felt distant to them,” he added. “And I hope that this will be an experience that inspires them as they share the gospel through their ability to speak English.”



한인신학교 최초 ATS 정회원 인준

미연방정부 학비 지원 • 미국 정규대학 학사/석사 학위 • 한국어 강의 • 미군목 장교지원
미국 주류 기독교대학(원) 편/입학 • 온라인 수업&모바일 사용 • 유학생 1-20 발행



기독교대학연합회 정회원(ABHE)
신학대학원협의회 정회원(ATS)

마정부 재정지원(Pell Grant)
유학생 1-20 발행

WORLD MISSION UNIVERSITY

캠퍼스 프로그램

- 준학사과정: 성서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학사과정: 성서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음악학과
- 석사과정: 목회학과 / 신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LA 분교, OC 분교) / 음악학과
- 박사과정: 목회학과 / 교회음악학과 (신설)
- 수료증과정: WMU 상담교실 / 바이블 아카데미 / 가정상담사역자과정

온라인 프로그램

- 준학사과정: 성서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학사과정: 성서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석사과정: 목회학과 / 신학과 / 기독교상담학과
- 수료증과정: 가정상담 사역자과정 / 유아교육 원장 및 교사과정



월드미션대학교 | 2017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원서접수 마감

2017년 8월 4일(금)

입학문의

213 388 1000

admissions@wmu.edu



World Mission University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missionchurch.org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The Temptation of Meaninglessness

BY DAVID KIM

The sun comes up; the sun goes down. You are hungry, so you try that new restaurant that everyone's been raving about. Then minutes later you're hungry again. You are thirsty, so you get a drink only to be thirsty again later.

You plan and wait for that vacation. You have an amazing time only to feel sad and depressed when it's all over.

You desire something, whether it is a person, a position, or a possession, but when you finally attain it, you get bored or tired of it. Then you desire something else again.

And so it goes, on and on — the same story, different characters, different props. After a while, I find myself asking, "What is the point of all this?" I don't mean, what is the point of the sun or eating or drinking. What I'm asking is, "What is the ultimate point of everything in life if I'm simply going to see it again, desire it again, need it again? What is the point if all roads end in death anyway?"

One of my favorite books of the Bible is Ecclesiastes. It's a fascinating book, especially the first three chapters, because it reads unlike anything in the rest of Scripture. It begins with an interesting premise: Let's examine life "under the sun." That is, let's analyze what earthly life looks like without God in the picture. The writer's findings are both comforting to me (I'm not the first person to think these thoughts) and sobering (my misery has company).

The author is (most likely) King Solomon, and he had everything: riches beyond compare, women at his beck and call, and royal power at his disposal. In spite of all this, he also had thought those thoughts, those middle-of-the-night thoughts. He ponders life, reflecting upon

its ultimate meaning, and he is struck by the vicious cyclical nature of everything on earth and by the meaninglessness of all human experience in the face of death and oblivion.

As he looks back on his life, Solomon declares, "All things are wearisome, more than one can say. The eye never has enough of seeing, nor the ear its fill of hearing. What has been will be again, what has been done will be again;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Ecclesiastes 1:8-9). And in light of death, he goes on to conclude, "No one remembers the former generations, and even those yet to come will not be remembered by those who followed them" (1:11).

There is a reason, when we really ponder life, that we come to the conclusion of meaninglessness. It's because life, on its own merits, is futile. Life, with all its ups and downs, virtues and vices, is horribly and undeniably empty. If we simply judge life on its own merits, it cannot redeem itself. Life cannot lift life out of the pit of pointlessness, for it is terribly circular, and painfully repetitive.

In the first three chapters, the author of Ecclesiastes indirectly points us towards God by showing us first the terrifying alternative if God does not exist. We are left with meaningless cycles upon cycles that inevitably end with our demise. Without God, meaning itself is bankrupt.

The point of this life, however, is not to see riches, pleasure, and power as ends in themselves, but as clues to something bigger, something beyond. C.S. Lewis states: "If I find in myself a desire which no experience in this world can satisfy, the most probable explanation is that I was made for another world." We were made for more than mere eating, drinking, or trending. Our Creator has wired us to be dissatisfied with worldly things

because the only One who can truly satisfy us is Him.

In the Gospel of John, Jesus Christ explains the problem when he speaks to a Samaritan woman at a nearby well. She was looking for water, but Jesus knew she had spent her life looking for something much deeper. As He gently conversed with her, Jesus pointed to life's characteristic futility and alludes to the divine alternative: "Everyone who drinks this water will be thirsty again,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them will never thirst. Indeed, the water I give them will become in the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John 4:13-14).

Excited and amazed, the woman asks, "Sir, give me this water so that I won't get thirsty and have to keep coming here to draw water" (John 4:15).

So Jesus, the master surgeon, cuts to the heart of the matter and exposes her empty pursuit of fulfillment. The woman had been intimate with multiple men and now lived with someone who was not her husband. She was now standing transparent before her Creator.

One of the key requirements to finding our ultimate fulfillment in Christ is admitting to God that all our human attempts at happiness, security, and satisfaction have been futile. We must come to Him honestly, agreeing with both the message of Ecclesiastes and the promise of Christ. We must confess that, in our quest for self-fulfillment, we have wronged Him, and we must turn to Christ for forgiveness to begin anew.

David Kim is a high school English teacher from Diamond Bar, CA.

This article has been republished with permission from the SOLA Network website. SOLA exists to influence the emerging generation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Seven Dangers in the Last Few Years of Your Ministry

BY THOM RAINER

I am writing this article on my 62nd birthday.

Yeah, I'm a real party animal.

Let me shoot straight. I have so much for which to be thankful. God has blessed me immeasurably, none of which I deserve. If my ministry were to end today through death or disability, I could only praise Him for the life and ministry He gave me.

But I am assuming I have a few more years left in ministry. And this point in my life is both a time of reflection and looking forward. I want this fourth quarter of my ministry to make a difference for His glory.

To be clear, I want to avoid seven dangers in my last years of ministry. And I know I can succumb to any and all of these dangers without His strength, His mercy, and His plan.

1. Coasting. Lord, show me how to give my all for You. Wake me up to the reality of coasting if I ever move in that direction. Remind me that laziness is not just a bad work ethic; it is a sin and affront against You.

2. Hanging on. I pray I will not hang on for just another paycheck. I pray I will place the timing of my ministry in God's hands, not my 401(k). I

pray I will not love my position in ministry so much that I can't hear Your voice when it's time to move on.

3. Weariness. Ministry is not for cowards. Yes, there are the constant streams of human critics but, even more dangerous, ministry is spiritual warfare. I pray I will not grow weary, but find my strength in God through prayer and the daily reading of His Word.

4. Misplaced identity. My identity is not president, pastor, or church staff member. My identity is in Christ. If my identity is in my present vocation, I will not let go when it's time. I will hold onto the idols of ego, self-gratification, and ephemeral titles.

5. Change aversion. My prayer is I will always be open to needed change, that I will not leave the work of change for the one who follows me. I pray I will still have the courage and strength to make the tough decisions, not to kick the can for another time and another leader.

6. Failure to stay current. It's a challenge to keep up. Change is hitting us so rapidly. I could get lazy and not read, not be challenged by others, or scream that the way we've always done it is just fine. In my later years of ministry, I pray I will not succumb to the

temptation of no longer learning.

7. Regret. For sure, I've made plenty of mistakes. If I wrote a book about stupid things I've done in ministry, it would have to be a multi-volume series.

But, in these latter years of ministry, I can't look back. I can't wallow in the self-pity of past stupidity. The past is past. I look to God's future.

Brothers and sisters, I do not consider myself to have taken hold of it. But one thing I do: Forgetting what is behind, and reaching forward to what is ahead, I pursue as my goal the prize promised by God's heavenly call in Christ Jesus. (Philippians 3:13-14, CSB)

May those verses be my theme for the years I have left to serve the One who has called me, strengthened me, and given me the great promise of His presence and power.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at ThomRainer.com on July 24, 2017. Thom S. Rainer serves as president and CEO of LifeWay Christian Resources. Among his greatest joys are his family: his wife Nellie Jo; three sons, Sam, Art, and Jess; and nine grandchildren. Dr. Rainer can be found on Twitter @ThomRainer and at facebook.com/Thom.S.Rainer.

영혼의 진주를 사세요

| 소강석 지음 |

원색적인 복음 선포와 전도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사라져가는 시대
여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수많은 부흥성회와 연합집회, 목회 생태계 복원 사역을 위해
온 몸으로 포효한 한 목회자의 불꽃같은 메시지가 있다!
갈수록 영혼구원을 향한 열망과 전도의 동력이 소멸되어가는 시대 속에
그의 메시지는 부흥의 불꽃이 되고 파도가 될 것이다.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구원 초청과 전도 독려 설교의 완결편!

320면 / 13,000원

320면 / 13,000원

예수 마니아가 되라

| 소강석 지음 |

◉ **쿰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쿰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cumran.co.kr • 서울 중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내)

Kansas Governor Sam Brownback Nominated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mbassador

President Donald Trump has nominated current Kansas governor Samuel Brownback to be the next ambassador-at-large for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If his nomination is confirmed by the Senate, Brownback would be the first elected official to take on the position. Past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mbassadors have been leaders of non-profit organizations or religious leaders. The most recent ambassador-at-large was David Saperstein, a rabbi.

"Religious freedom is the first freedom. The choice of what you do with your own soul," tweeted Brownback on July 26. "I am honored to serve such an important cause."

"Kansas is my home. Here, we are free to live in faith. Religion is where we live our inner life. All people ought to live that in freedom," Brownback added on the following day.

After his nomination, many leaders in nonprofits and religious communities endorsed Brownback and said his previous efforts to promote religious freedom make him fit for the role.

For instance, Frank Wolf, former Virginia politician, told Christianity Today that Brownback "was the first senator to go to Darfur during the genocide, and came back and spoke out to help the people of Sudan."

"He was also very active in working on issues of religious freedom in Egypt, China, and many other countries. At a time when, according to the Pew Research Center, we see growing religious



Sam Brownback, current governor of Kansas, has been nominated to be the ambassador-at-large for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Photo: Gage Skidmore / Flickr / CC)

persecution, I believe Sam Brownback is an outstanding appointment," Wolf said.

Brownback was also one of the sponsors of the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in 1998, a measure which created the very position that he has been nominated to take on.

"Given his strong experience on the important issue of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we have confidence that Gov. Brownback will be an important asset and champion," said David Curry, the CEO of the advocacy group Open Doors USA. "This nomination demonstrates a genuine commitment on behalf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o religious freedom around the world."

"With religious persecution reaching devastating levels around the world, we urge the Senate to confirm Gov. Brownback for this crucial role as soon as possible," Curry added.

Russell Moore, the president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s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also endorsed Brownback, and described him as "a seasoned, respected leader who brings conviction and gravity" to the position.

"While in the Senate, Brownback was heroic on the crisis in Darfur, in dealing with AIDS in Africa and advocating on behalf of persecuted religious minorities. He will be an exceptional Ambassador," Moore said.

Eight Churches in Baghdad Shut Their Doors, Human Rights Group Reports

Amid the instability and violence that have occurred in the region over the course of more than 10 years, eight churches in Baghdad have closed their doors for good, according to a human rights organization focusing on persecuted Christians.

The churches closed down in May "after nearly seven years of low to no attendance," the Monday report from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says.

"After the regional Catholic Church authority visited the churches, the Vatican decided that it was best to close the doors for good," the report continues. "While this makes logistical sense, it represents a symbolic defeat for the Church in the capital of Iraq."

The Christian population in Baghdad began decreasing since the mid-2000s, according to the ICC, when sectarian conflicts stirred unrest in the city, and Sunni radicals started to threaten Christian residents.

"In early 2006, we forcibly left our house because we got an envelope tell[ing] us, 'You have to leave within 48 hours, all you have to take is your clothes, if you t[ake] anything else we will kill you,'" a former Baghdad resident named Seza told the ICC. "Still I have the envelope and the three bullets we received from the gang."

Threats and attacks on homes and



Chaldean Cathedral Church of Mary Mother of Sorrows in Shorja market, Baghdad, pictured in 2016. (Photo: Azis 1005 / Wikimedia / CC)

churches continued, most notably including an attack perpetrated by six extremists at the Sayedat al-najat Syrian Catholic Church, resulting in the death of 58 Christians.

Displacement of Baghdad's Christians only worsened with the entrance of ISIS in the region in 2014.

"As one of the birthplaces of the religion itself, it's hard to imagine the Church disappearing from Iraq, but once again, religious leaders fear this may be

the case," the ICC said.

"From a humanitarian perspective, there is only so much we can do to help," it continued. "Thankfully, we know the Lord works in times such as these. Who's to say that the Church in Iraq won't see a spectacular growth in the years to come? The future of the Iraqi Church may not come from its rich religious history, but rather a new congregation of converts."

According to the ICC, some 230,000 Christians currently remain in Iraq.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ela.org

Sunday Services: 1:45 PM

PASTOR MITCHELL PEREZ

The Home Church

19100 E. Killian Avenu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ANC 세미나 공식 후원업체

GSI 블랙박스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무료 설치"

GSI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블랙박스과 함께 안심 운전하세요

1

Aitz SMVB-6100

- 컴팩트 실속형 (주차감시 모드 시 전/후방 모션 감지 및 충격감지를 동시에 지원)

\$150 전.후방
\$190 전.후방

2

Aitz ROAD

- 3.5인치 터치스크린
- 포맷프리, 고온 차단 기능
- 128GB까지 인식

\$220 전.후방

3

Aitz ALPHA

- 4.0인치 FHD 의 터치스크린
- 첨단 안전운전자원 시스템(ADAS)탑재
- 포맷프리
-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으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최적의 탑재위치

\$320 전.후방

4

Aitz RC-100

- 후진기에서 자동으로 주차영상을 보여주는 콤보형
- 4.0인치 터치스크린

\$320 전.후방

5

eCell e-FOCUS

- 본체 분리 2채널 초소형 카메라
- 스마트폰 연동기능 (모바일 앱 통해 녹화영상, 실시간영상, 충격영상 확인가능)
- 포맷프리
- 앱 무료설치 및 업데이트
- 스트릿 파킹도 안심하세요

\$320 전.후방

* 그외 상업용 차량 및 모터 사이클용 블랙박스 판매

전시 및 Warehouse

GSI Systems, Inc.

860 E. La Habra Blvd, #220A
La Habra, CA 90631

GSI 블랙박스 판매/설치 연락처

LA & OC : T(408)966-8595, (714)349-8131

GSI SYSTEMS INC. - DASHBOARD CAMERA COMPANY
유형차 (Benz, BMW, Audi 및 특수차량)는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Coupon

기독일보 독자들만을 위한 혜택!

이 쿠폰을 지참하신 분들에게는
Micro SD Card 32GB 무료 증정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께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1병 Free)
\$267+Tax



프로지 골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지로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글리세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인체는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 혈당 조절이 안되어 당뇨병이 발생하며,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장성을 높여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글리세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금 굿기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미국에서도 부자 동네에 형편없는 자동차가 들어가면 경찰이 검문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 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분양과 임대 아파트를 구별하기 위해서 담장을 만들어 통행에 불편을 겪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담 하나를 놓고, 웃지 못할 자존심의 싸움이 일어나 봅니다.

문득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며 짝꿍과 함께 쓰는 책상에 금 굿던 일이 떠오릅니다. 때로는 미술시간에 사용했던 조각칼로 나무 책상 위에 아예 계곡을 만들어 경계를 분명히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자로 재어서 공평하게 구역을 나누어 서로의 영역에 공책이나, 연필이 넘어가지 않도록 했는데,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기본 나쁜 일이 생기면 서로의 영역으로 지우개 똥을 남기며 신경전을 벌였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던 모습이었습니니다.

휴전선으로 두 동강 난 조국의 현실 속에서 늘 반공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같이 공부하는 짝과도 금 굿는 일은 오래 전부터 해오던 습관

인 듯합니다.

미국 동부에서 오래 살다가 12년 전 캘리포니아로 이사오면서 처음으로 받았던 문화충격은 집과 집 사이에 담이 쳐진 것이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 사이에 잔디 깎을 땅도 없는데, 행정구역 표시가 너무 심하다 싶었습니다. 동부 뉴잉글랜드에서 살 때는 서로 경계를 넘나들면서 잔디도 깎아 주고 겨울에는 눈도 서로 치워주던 정서가 있었는데, 이웃과 담을 치고 사는 서부 생활 구조는 참 답답했습니다. 가끔 미 동부와 서부의 차이를 묻는 분들이 많은데, 서부가 동부보다 개인주의가 훨씬 강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담장을

치는 문화 때문에 생겨난 성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는 문화라 할 수 있지만, 부작용으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이 약해져서 교회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도 이 영향을 받아 셀모임을 위해 가정의 문을 여는 것도 동부보다는 서부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금 굿는 문화를 뚫고 선을 넘어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했던 시절은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38년보다 더 확실하게 금이 그어져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국경 수비대는 없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자리 잡혀 있는 인종차별 의식 때문에 서로의 땅도 밟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감하게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러 당시 금기사항을 깨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미 한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네 자리, 내 자리 하며 금 굿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차별을 없앤 사람들입니다.

섬김은 무릎 꿇는 사랑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섬김의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대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섬김을 위한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심에 있습니다. 참된 섬김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무릎 꿇는 섬김입니다. 섬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는 몸의 자세에 영향을 끼칩니다. 몸으로 무릎 꿇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섬김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려야 섬김을 위해 손이 열리고, 섬김을 위해 몸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대야에 물을 준비하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후,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와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수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위한 수건을 자주 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 중에 세례와 성찬이 있고, 또 하나는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섬김입니다(요13:14-15). 그런데 세례와 성찬은 실천하면서도 발을 씻어 주는 섬김은 잘 실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친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는 섬길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는 자세는 자신을

낮추는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비굴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자처럼 보이고, 약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섬김을 위해 무릎을 꿇는 것은 결코 비굴함도 약함도 아닙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자만이 무릎을 꿇고 섬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시는 예수님의 섬김은 용서를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곧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스승을 팔고 배신하고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장차 지을 죄를 아시고, 미리 무릎을 꿇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보통은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이 용서를 베푸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를 받아야 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섬김의 극치는 용서에 있습니다.

섬김의 뿌리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사랑은 우리를 유연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섬기게 만듭니다. 사랑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저 줍니다. 사랑하면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씨름하면 아버지가 집니다.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져 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자존감을 세워 주기 위해 져 주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힘이지만 져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져 줄 줄 아는 사랑이 감동을 줍니다. 이길 수 있어도 져 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입니다. 사랑하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은 섬김에서 가장 빛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꽃꽂이 서서 남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섬기려면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섬기려면 유연해 져야 합니다. 섬김다는 것은 섬기는 대상과 관련을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심으로 베드로와 관련을 맺으셨습니다(요13:8). 우리가 섬기는 것은 관련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무릎을 꿇는 섬김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거룩한 관심입니다. 섬기는 대상을 존귀히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처 받은 영혼은 무조건인 사랑으로 섬김을 받을 때 치유됩니다. 섬김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무릎을 꿇는 섬김에는 신비로운 기쁨이 동반합니다. 섬김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순수한 섬김은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영혼위에 하늘의 기쁨이 깃듭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섬기면 내적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섬길 때 하늘로부터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섬김은 신비요, 천국의 원리입니다.

부흥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박성근 목사
로스앤젤스한인침례교회

피닉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토미 바넷 목사가 1996년 1월 첫 주일 설교를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했습니다. “부흥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가 축적한 기도의 양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실은 디엘 무디가 했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만, 바넷은 이것을 자신의 교회에서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다음의 네 가지를 실천하도록 도전했습니다.

첫째, 다음 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둘째, 한 주에 한 끼를 금식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셋째,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넷째, 한 달 동안 꼭 십일조를 하십시오.

이 도전 앞에 교인들 중 90%가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밤새 철야기도를 위해 교회

로 왔고, 한 주간 내내 잠자고 사위하는 시간만 빼고 기도에도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기대를 넘어선 부흥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예배가 뜨거워지며,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며, 매주일 성령의 임재와 기쁨부음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AIM이라는 선교사역이 시작되고, 오하

이요,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지에 지교회 개척되었으며, 수많은 선교단체들과 동역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부흥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물꼬를 트기 시작하신 것뿐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다락방에서, 가정에서, 사역 현장에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행9:31). 이런 역사가 오늘날은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함께 새 회복과 부흥의 아침을 볼 수 있길 기도합니다.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공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제24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2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7년 12월 16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협찬
 거주처와 대표 오덕재 원장,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후원 기독교일보, FH미션

+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건축자들의 버린 돌

마태복음 21:42-4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건축자들에게 필요한 돌은 주춧돌입니다. 이것을 건축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쓸모없다고 내어 버리게 될 때 그 집은 머릿돌을 제공하신 이의 뜻대로 지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교회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율법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계약을 성취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머릿돌의 가치와 용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문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은혜계약의 성취라는 놀라운 축복을 스스로 거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1.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만일 머릿돌로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다면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세계선교의 본거지로 인류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을 것이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이 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첫번째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건축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 영적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들로 이스라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장로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머릿돌도 제공해 주셨음에도 그 설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설계를 하고 그 돌의 본질과 용도와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문 밖에 끌어내어 끌고다 언덕에 갖다 내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 돌은 베드로전서 2:4-5에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을 짓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교회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머릿돌로 알아보지 못하고 갖다 버림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망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려진 그 돌의 가치와 용도를 전세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알게 해 주시니 오늘과 같아서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해 주시고 우리가 세계선교를 하는 것 또한 이 돌을 소개하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돌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은혜계약의 대상인 듯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계약에는 외인인인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기 사실이

였습니다. 에베소서 2:12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돌을 주실 대상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를 받음으로 남자들이며 육체의 표식을 가졌고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 돌(Living Stone)을 줄 타이니 그 돌 위에 너의 영적인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복락의 후사가 되도록 하라고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는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되고 있는 살아있는 돌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면 영적인 소망을 그르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머릿돌을 내어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43절)고 합니다. 허락된 그 나라 이스라엘은 하늘나라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신령한 소망을 가질 줄 몰랐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하늘나라를 허락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하십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에게만 머릿돌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갖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버리지도 않고 시고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신령한 성질을 짓고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소망만 가꾸는 백성이라면 하늘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하고, 신령한 소망을 목적으로 믿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머릿돌을 삼은 신앙건축가가 되기만 하면 하늘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구원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2.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돌이 세계만방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돌을 세계각국에 소개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물질로 애를 쓰며 돕고 있습니다. 이 돌에 대한 가치를 바로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해서 그 돌 위에 자기 집을 건축하는 사람은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어서 성령으로 하늘 소망에 결실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교회마다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와 물질로 선교 뒷바라지를 하고 애를 써서 이

돌의 가치와 용도를 소망적인 복음으로 애타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외면하며 사는 인생들의 결과는 어떠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돌은 건축자의 머릿돌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고 신령한 소망에 믿음을 잘 건축하는 사람은 그 돌로 말미암아 영생복락의 구원을 얻지만 그 돌의 가치를 알아볼만 하도록 증거하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와 불신앙으로 거부하며 말악하고 대적했다가 스스로 세상조건에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돌 위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인생은 깨어져 박살나고 말 것입니다.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도 가루가 되어 흩어진다고 하셨으나 그 인생의 심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52 이하에 보면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했을 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마음에 가책을 느꼈음에도 그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고 도리어 이를 갈며 돌을 던져 스테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달았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반석으로 소개되는 예수님, 산돌이시며 보배로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온

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이 돌의 본질과 가치와 용도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영문 밖에 꺼뜨려 버렸습니다.

3.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이 돌에 붙어있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불신자들입니다.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 돌에 붙어사는 이들은 구원을 얻고 심판에도 동참을 합니다. 이 돌에 붙어사는 이들은 이 돌의 움직임을 따라 함께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돌에 붙어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3-4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지고, 철저히 회개해서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자라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기만 하다고 산돌인 예수님 곁에 있어도 붙어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절대주의 신앙,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만 사는 믿음은 예수님께 붙어사는 자가 되고 성령이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자를 예수님께 완전히 붙이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로 인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며, 그 돌이 떨어져 부서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어지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가장 안전한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말 오후 10시30분	주말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7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4(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범 목사
1818 S. Western Ave #408, Los Angeles, CA 90006
Tel: (213)643-0301 Fax: (21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적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시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u.edu
www.chongshinus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6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미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토 예약 필수)

CD PRINTING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선교 찬양 단원 모집

• 단장 : 1명 • 기타 : 1명
 • 단원 : 12명 • 키보드 : 1명

* 40~50대 남녀
 * 찬양선교에 관심있거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

문의 : T.(213)800-5205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무료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인하소반주 각종 김치
626-731-7864 (\$40이상 주문시) 무료배달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 (40개 \$20)
 김치교자, 부추교자 (50개 \$20) 왕만두, 팔짚빵 (10개 \$10)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통, 발통 질환 }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한인교회를 위한 SUMMER EVENT

MAKER FUN FACTORY Created by GOD Built for a Purpose

VBS T-Shirt Full Color Printing
 Adult \$ 7.20
 Kids \$ 5.50

그 밖에도 VBS를 위한 물티슈, 가방, 배너, 포스터, 초대장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프린트CD+CD봉투+라벨] 포함입니다.

BANNER
 인기 상품 A형 스탠드배너 \$65 Stand X-Banner
 거치대포함 *사이드에서 영문선택 \$140 Retractable Banner
 \$160 (디자인 포함)

3170 E. 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323.265.0244 E-mail: junimedia@gmail.com

신간 도서

시대 묵상

박영돈 | IVP | 292쪽

페이스북을 통해 신학교 교수로서 교회와 사회의 각종 사안에 침묵하지 않고 선지자적 음성을 뽐아냈던 저자의 목소리를 오롯이 담았다. 처음 글을 썼던 2012년부터 현재까지 날짜별 순차적으로 구성돼 있어 읽다 보면 지난 5년간 교회와 사회에 있었던 주요 사건의 흐름들을 회고할 수도 있다. 글은 '새 대통령 선출'로 끝난다. 신앙과 삶의 대화를 원하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다.



추천 도서

교회와 정부 간의 올바른 모습이란 무엇인가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교회, 국가, 공적 정의 논쟁

<교회, 국가, 공적 정의 논쟁>은 새물결플러스의 스펙트럼 6번째 시리즈이다. 스펙트럼 시리즈는 하나의 쟁점에 여러 전문 학자들이 각자의 입장을 서술하고, 그 뒤에는 나머지 학자들의 비평이 수록돼 있다. 이 책에서는 교회와 국가(정부)는 무엇인가? 둘 사이의 적절한 관계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따라 가톨릭 관점, 고전적 분리주의 관점, 원리적 다원주의 관점, 재세례파 관점, 사회정의 관점 등을 소개하고 서로를 비평한다.

1. 가톨릭 관점

가톨릭 관점은 5가지 관점 중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체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가톨릭의 역사 내내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경험해 왔던 것들의 축적물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교회와 국가가 긴장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하며 그 상태를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협력 경쟁 도전 초월 등이다. 협력은 선을 이루는 데 있어 국가와 교회가 협력하는 것, 경쟁은 더 좋은 선을 위해 공공기관과 가톨릭기관 간에 경쟁하는 것, 도전은 국가가 정의를 해치려 할 때 교회가 국가에 반기를 드는 것, 초월은 국가가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 즉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분류는 교회와 국가 간의 역사적이고 모순적인 면을 긴장 관계 속 네 가지 형태로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저자는 이 네 가지를 실행케 하는 중심 가치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공동선, 연대 그리고 정의이다. 세 가지는 결국 인간 각자가 존엄하며 관계적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정리하자면 '인간의 존엄을 지지하는 가톨릭은 공동선, 연대,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국가와 네 가지 형태의 긴장 상태로 공적 정의에 참여한 다'가 되겠다.

2. 고전적 분리주의 관점

이 관점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를 할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에 입각해 주장을 펼친다. 이 주장은 챔터 제복대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강조한다. 크게 개인적, 그리고 교회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적 측면으로는 정부가 개인의 종교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야 자유가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교회적 측면으



교회, 국가, 공적 정의 논쟁
클락 E. 코크란 외 | 김희준 역
새물결플러스 | 408쪽

로는 만일 교회가 국가와 협력하고 원조를 받게 되면 국가의 악에 대한 선지자적 목소리가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고전적 분리주의는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지양하며 개인의 자유와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을 지키는 데 주요점을 둔다.

3. 원리적 다원주의

이 장의 저자는 원리적 다원주의가 개혁주의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창조 타락 구속에 맞추어 설명한다. 창조는 문화 명령이다. 즉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창조 세계를 발전 가능성의 일들을 실현시키며 계속 창조해 가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세상은 타락하게 된다. 타락과 구속 사이의 중요한 부분은 이 타락한 세상을 다 폐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원래의 창조 의도대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속의 최종 목표이다. 즉 하나님의 세상을 빛나는 창조성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결국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이 구속이라는 것이다.

이것과 함께 나오는 개념이 영역 주권, 즉 각 공동체(영역)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임무와 목적이 있다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절대적인 기관이 아니라 귀천이 없는 각각의 영역들 중 하나이며,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게끔 중재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재세례파 관점

재세례파는 예수와 평화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이다. 그리고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하는 가시적 공동체가 존재한다. 나사렛의 목수이자 온 교회와 우주의 주인, 평화의 왕, 그

가 이 땅에서 선포했던 것과 보여줬던 것들을 신실히 모방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한다. 즉 '가시적 공동체'로 부름 받은 우리는 소유를 나누고 누구든 차별하지 않는 등 실제적인 행동들로 세상에 충격을 주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복음이 세상에 적용될 수 있는 예시와 자국이 되는 것이 공동체의 방향이라고 주장한다.

또 재세례파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인 비폭력도 거론된다. 재세례파는 유대인의 범위, 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이웃사랑을 주장하며 폭력에 저항한다. 모든 문제에 무기를 들이대는 대신, 가해자의 필요를 고려하며 사랑으로 응답하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인 용서와 사랑이었던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며 비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엄격한 비폭력을 앞세운 가시적 공동체를 국가에 보여주고 도전하는 것이 재세례파와 국가간의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사회정의의 관점

사회정의의 관점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사회정의를 이루자는 주장이다. 이 저자는 국가를 '전체로서 행동하는 사회'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국가는 전체 공동체이며 그 속에 속한 시민 누구든 국가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장의 제목대로 사회정의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각자에게 그 몫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전제한다. 거기에 저자는 기독교적 해석을 추가시켜, 각자의 몫은 궁극적으로 심판이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한다. 이 관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넘어서는 관점이며, 단순히 사회학적·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사회정의의 개념을 훌쩍 뛰어넘게 만든다. 다소 모호하고 일반적인 개념이 많아 다른 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긴 했지만,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서로 다른 5개의 관점이지만 교차점이 많으며, 서로가 서로를 보충해주기도 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며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하다(185쪽)'는 기독교적 신념 위에 모두가 있기 때문이다.

박예찬
크리스찬북뉴스 명예편집위원

단숨에 읽는 구속사

김창영 · 김홍만 | 생명의말씀사 | 168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 이야기'를 증거한다. 성경을 몇 번씩 읽어도 막연하게 잡히지 않는 '구속사'를 성경 전체에서 주요 사건들을 뽑아내 창조-민족-선지자-예수-교회 등 다섯 시대별로 쉽게 가르치고 있다. 저자들은 성경이 사라져 가고,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의 도가 등한 시되는 조국 교회를 안타까운 심정에서 바라보며 책을 썼다고 한다.



협담을 멈추라

매튜 C. 미첼 | 이준환 역 | CLC | 255쪽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허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 다룬다. 특히 SNS가 보편화되면서 '손가락'만으로도 온갖 협담이 전 세계적으로 가능해진 지금, 협담의 성경적 정의부터 협담하는 이유, 협담과 싸우기와 뉘우치기, 협담에 대한 반응과 대안 등을 다루고 있다. 원제 'Resisting Gossip'. 120년된 시골교회를 담임하는 저자는 협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함께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협담에서 자유롭게 하는지 가르쳐 준다.



농장, 기도원, 고급주택

- 71만불의 가치—— 단 41만불
- 고급주택 3Bedroom, 3 Bathroom
- 매일 3,000불의 매출 수익
- 우물 7만불의 가치 2개 있음
- 큰 도로 옆에 있어 편리함
- 유명한 구름이 머무는 곳 근처
- 제주도 날씨와 같이 한국에서 나는 과일,야채 100%재배 가능

연락처 : T.(213)298-8384 James Nam
주소 : 1232 Westchester Pl, Los Angeles, CA 90019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매편: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알칼리성

산성	중성		알칼리성	
3.5	6.0	7.0	8.5	9.0 9.5 10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광복 제72주년 기념 8.15 경축 음악회

초대합니다

저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L.A. 한인회와 함께 이번 광복 제72주년을 맞이하여 민족의 해방은 빛대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임을 고백하며 동북아에서 인류생존의 사상과 체제가 출현하다는 미래학자들의 전망에 따라 인류를 리드하는 한민족 공동체를 위해 **8.15 경축음악회**를 훌륭한 애국 애족의 음악인들과 함께 **닥터진(주)**의 후원으로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한민족의 미래를 위한 감사와 기도의 시간에 함께 해 주시기 소원합니다.



테너 오위영



소프라노 황혜경



바리톤 채흥석



코랄레움 선교합창단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합창단



메조소프라노 조미자



기타 김동철



LA 여성선교합창단



예루살렘 성가단



서문옥 지휘자
예루살렘 성가단



김용재 지휘자
Hayfield Youth Orchestra



Hayfield Youth Orchestra



Joyful Mission Chorus

일시 2017년 8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장소 마가교회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연락처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323-735-3000 / 213-272-6031 / 213-381-7755

공동주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www.drgene.co.kr
Wellness 선도기업
Dr. Gene
닥터진(주)

차별화된 **ZINO** 수소수
ZINO Hydrogen-water

213-999-3978



로스엔젤레스한인회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Ticket \$20 Pay to the CKCSC / Tax Exemption (세금공제) / 보내실곳: 981 S. Western Ave. #401, LA, CA 90006

차별화된 닥터진 수소수

수소수를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 모든 질병의 80%는 활성산소가 원인 (미국 존스홉킨스대 의학보고서)
- 수소수가 답이다 : 최고의 천연 항산화 물질
활성산소인 하이드로실라디칼(Hydroxyl Radical)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합니다.
(네이처메디슨 Nature Medicine)
- 수소수의 효능은 세계적인 의학지 네이처메디슨(Nature Medicine) 외 권위있는 400여편의 논문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신 수소수가 아닙니다.

- 용존수소 1000PPB이상 수치가 나옵니다
- 용존수소 3일간 보존됩니다
- 온수(80°C)도 수소가 용존됩니다
- 필터를 교환하지 않습니다

해외선교 및 해외여행시 물에 대한 걱정!!!
닥터진 수소수가 해결해 드립니다.

(주)닥터진 제품 설명회

일시: 8월 8일(화) 오전 11시
장소: 로텍스호텔(Rotex Hotel) 2층
(323-734-1001)
3411 W. Olympic Bl. LA CA 90019



President,
Byeong-Yong Jeong
정병용 대표이사



www.drgene.co.kr
미국지사 : 621S Virgil Ave#480 LA, CA 90005
상담전화 : 213-999-3978

